

'김장김치 축제 한마당'에 사랑과 정성 듬뿍

전북농협, 김장채소 소비 촉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위해 10년 넘게 나눔 실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KBS전주방송총국(총국장 김종진), 농기주부모임(회장 이경자), 고향주부모임(회장 정명숙), 농촌사랑봉사단(회장 은경희)과 공동으로 지난 13일 KBS 잔디광장에서 여성 지도자, 여성단체 회원, 다문화 여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정이 넘치는 김치 전달식 위한 '2018 전북도 김장김치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종진 KBS전주방송총국장, 김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톤의 김장김치 담그기와 더불어 스펀지 4개 조동학생 200여명의 김장체험, 김장채소·양념

류·가공식품 등 직거래 장터, 순창고추장익는마을·임실치즈마을의 팜스테이 체험, 김장김치 컨테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전북농협의 김장김치 축제는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하는 나눔 실천으로 김장철을 맞아 김장채소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0년 넘게 해 오고 있다.

농기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톤과 쌀 1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농협시군지부를 통해 이웃에게 전달 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치단체와 농협이 앞장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김장김치 축제 한마당 행사와 함께 김치 컨테스트도 열렸다.

불빨간 양파(대상, 최옥순씨), 파프리카 김치, 곰보배추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특별한 김치 20개 작품을 출품, 회원들의 솜씨를 겨루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김치문화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김장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과 여성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지난 13일 KBS 잔디광장에서 온정이 넘치는 김치 전달식 위한 '2018 전북도 김장김치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전북은행, 신입 연수 입교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2일 전북은행 본점 연수원에서 '2018년 신입행원 연수 입교식'을 갖고 인재육성을 위한 직무연수에 들어갔다.

전병찬 JB금융그룹전북은행부행장은 "급속히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Digital 전북은행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무연수에 적극 참여, 직장인으로 기본예절과 근면함, 금융인으로서의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더욱 좁아진 취업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 진심으로 축하하고 열정과 패기를 발휘해 주어진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발된 신입행원들은 일주일간 무주국립태권도원에서 Welcome 워크샵을 통해 신입행원의 자세,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고 7주간의 직무연수, 전산실습, CS교육 등 기본소양교육과 영업실습 및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연수커리큘럼을 이수하여 본점과 영업점에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전북은행은 올 채용인원에서 5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규모로 전체 채용인원 중 전북지역인재는 70% 이상,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선보여

우리 기술로만 만든 차세대 스마트팜이 첫 선을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온실에서 2세대 스마트팜 기술 시연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작물 생육·환경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제공해 연중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가능케하는 지능화농장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1세대 기술은 모든 농사 환경을 농업인이 직접 설정·조작해야 해 농경 경험이 적은 젊은층이나 정보통신기술(ICT)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2세대 기술은 인공지능(AI)으로 작물의 성장·생육·질병 상태를 진단할 뿐 아니라 음성지문 플랫폼인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더해졌다.

현재 2세대 기술은 토마토를 대상으로 기술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농진청은 궁극적으로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프리바(Priva)시스템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과 유사한 농업환경에 있는 세계 각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출형의 3세대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이심점심 중식 지원... 영농 효율성 제고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14일 고향주부모임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와 이심점심 중식 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심점심 중식 지원 사업은 바쁜 농사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산농협 고향주부모임은 양파 식재에 한창인 농가를 찾아 농업인들의 점심을 지원, 양파 식재 작업을 도왔다.

고산농협 고향주부모임은 "중식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참여우' 브랜드의 우수성 다시 한번 증명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11년 연속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북 한우 광역 브랜드인 '참여우'가 소비자 시민모임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에서 11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영화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선정은 회원이 5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신청자격부터 (생산, 가공, 유통 단계) 전반적 과정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만큼 '참여우' 브랜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병무 참여우 의장을 비롯, 지역축협 조합장들은 "참여우가 11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된 것은 참여우 축산농가의 끝



전북 한우 광역 브랜드인 '참여우'가 지난 9일 열린 제15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에서 11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

임없는 노력으로 만든 성과로 앞으로도 브랜드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참여우 참여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살리기 총력전

올해 5100억원 신규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8 10월말까지 5,100억 원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상품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농림수산물발전

기금, 일자리안정자금, GM 및 조순소 특별보증 등을 통해 전북경제 활성화와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12일부터 전북도와의 협약 상품인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별보증을 지원 하고 있다. 협약 상품은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 인근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총 300여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이다.

김장근 NH농협은행전북본부장은 "최저임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운 도내 자영업자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 받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전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